

兩國의 科學技術協力の 底辺

대한민국 국무위원 최형섭, 과학기술처 장관과 일본국 국무대신 기우찌 시로 과학기술청장관과의 회의에 즈음하여 발표된 공동성명서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국무위원 최형섭 과학기술처 장관은 일본국 국무대신 기우찌 시로 과학기술청장관의 초청에 의하여, 1972년 4월 25일 부터 동월 29일 까지 일본국을 방문하였다.

최장관은, 제3차 한·일 과학기술장관회의로서, 기우찌장관과 회담하였다. 이 회담은 솔직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속에서 행하여졌다. 양 각료는 회의의 서두에서, 최근 과학기술에 대한 기대가 가일층 고조되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는 국제협력 특히, 지역간의 협력이 필수 요건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하여는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하여 계획적이고도 조직적인 협력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양 각료는 또한 근년 양국간의 과학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이 한층 진전되고 있는 것을 만족의 뜻을 가지고 지적하고, 금후 이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회담에 있어서 기우찌 장관은, 일본국에 있어서의 1970년대의 과학기술정책에 관하여 언급하였고 한편 최장관은 한국의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과학기술개발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담화를 나누었다.

양 각료는 또한, 회의에 앞서 행하여진 실무자에 의한 회담의 성과를 만족스러운 것으로 확인하고 양국간의 과학기술협력에 있어서의 제문제들에 관하여 토의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1. 양 각료는 재료 연구의 필요성에 감하여 이 분야에서의 연구 협력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검토를 추진할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2. 양 각료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가져오는 이익이 다대함을 인식하고, 이 분야에서의 연구개발에 있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정보의 교환, 전문가의 교류 등의 협력을 추진할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3. 양 각료는 기계설계 및 정밀 가공원의 훈련에 관한 협력에 있어서 기술자의 교류 및 연수생의 접수가 가능함을 인정하고 또한 공업표준화 및 시험검사원의 훈련에 관한 협력의 구체화에 대해 검토할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4. 양 각료는 농업분야에 있어서의 공동연구로서 "토양 및 작물체중의 미량금속원소의 분포와 행동에 관한 연구"를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5. 양 각료는 과학기술 정보활동 및 과학기술 지식의 보급, 개발활동의 중요성에 감하여 이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에 합의하였다.

6. 양 각료는 전과 과학기술 및 검토, 광물자원에 관한 연구 협력의 강화와 그리고 감염증에 관한 연구협력의 구체화를 도모할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7. 양 각료는 상술한 사업별 협력의 진전에 따라 이와 같은 협력 이외에 관계기관간 상호의 협력이 양국의 과학기술협력의 저변을 확대하고 또한 관계기관의 자발적 협력을 진전시키는데 있어서 유익하다는 인식에서 이의 구체화에 관하여 검토할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8. 양 각료는 양국의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 촉진을 위한 구체적 방책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종전의 실무자 회담에 추가하여 원칙적으로 각료 베이스의 회담의 중간 시점에서 실무담당자 베이스의 회담을 개최할 것에 합의하였다.

최장관은 기우찌 장관의 극진한 환영에 대하여 사의를 표하고 다음 회의를 위해 명년 기우찌장관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초청하였다.

會議에 參加한 韓國側代表團과 日本側代表團의 名單은 다음과 같다.

4. 회의대표

한 국 측

과학기술처 장관
원자력연구소장
과학기술처 종합계획관
// 정보관리관
// 연구조정관
// 지역협력과장
한국과학기술소장
외무부경제협력과 서기관
주일한국대사관 참사관
// 2등서기관

최형섭(崔亨燮)
윤용구(尹容九)
이덕선(李德善)
김형기(金溍基)
황해룡(黃海龍)
장상권(張相權)
한상준(韓相準)
이정남(李禎南)
신정섭(申貞燮)
오채기(吳彩基)

일 본 측

科學技術廳 長官
科學技術廳 事務次官
// 計劃局長
// 研究調整局長
// 振興局長
// 原子力局長
// 振興課長
// 國際課長
外務省 技術協力課長
// 科學課長
// 北南亞細亞課長代理

木內 四郎
梅澤 邦臣
橋本 愛郎
千代 葉博
田宮 茂文
成田 壽治
福永 博樹
鳴原 良樹
柳 健一
提功 一
遠藤 哲也

厚生省 } 實務者
農林省 }
通商産業省 }
郵政省 }
勞働省 }

擴大를 다짐

第3次 韓·日科學技術長官會議

27日 東京서 共同聲明



友邦國家 相互間的 協力體制強化가 當面한 課題

4月 27日 第3次 韓·日科學技術長官會議에서 崔亨燮長官은 다음과 같은 要旨의 式辭를 했다.

式 辭

尊敬하는 木內長官 그리고 日本代表 여러분!

本人은 오늘 第3回 科學技術長官會議에 參席하여 韓·日兩國의 科學技術協力增進에 關하여 協議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아울러

本人에게 베풀어 주신 따뜻하고도 友誼에 찬 歡迎에 對하여 深甚한 謝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70年代는 「第2次 UN開發의 十年」에서도 指摘되어 있는바와 같이 相互協力の 時代이며 또한 相互依存의 年代입니다.

昨今의 急變하는 國際情勢는 友邦國家 相互間的 地域的 協力體制의 必要性을 더욱 切實히 要請하고 있는 바, 本人은 「科學」과 「技術」을 協議하는 이 會談이 韓·日 두나라의 友誼增進에는 勿論 다른 모든 分野의 協力體制를 強化해 나가는 데 있어서 先導的인 役割을 擔當하게 되기를 衷心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人類社會에서의 飢餓과 疾病의 退治, 災害의 豫防과 公害의 追放 그리고 原子力의 平和의 利用等 綜合·大型化되어가는 現代 科學技術의 廣大한 領域은 오늘날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解決되기 어렵고 背景과 條件이 비슷한 地域內의 科學技術者들이 共同으로 參與하여 相互協助하고 補完하여, 나아가 人類共通의 資産으로 開發하고 善用할 것이 要請되고 있습니다.

韓國政府는 1. 2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遂行을 通하여 科學技術振興基盤의 造成에 注力하여 政府 및 民間에서 必要로 하

應用科學과 産業技術開發을 支援하기 爲한 韓國科學技術研究所와 研究開發을 뒷받침할 수 있는 人材를 養成하게 될 韓國科學院等 “부리다·타일”의 인스티튜트를 設立이 이미 끝났으며 한편 이들 機關을 움직여 나갈 人材들의 確保 또한 順調롭게

進行되고 있습니다.

70年代에는 先進技術을 積極導入함과 아울러 導入된 技術을 우리의 것으로 消化改良시키기 위한 研究開發에 集中的 努力을 傾注하는 한便 頭腦의 開發과 技術의 熱達 그리고 科學技術의 風土造成에 힘쓸 것입니다.

科學技術은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 그 純粹性과 必要性이 決定되게 될 것입니다. 人類平和와 福祉向上의 具現에 活用되지 못하는 科學技術이 人間社會에 必要할리 없으며 거기에 高邁한 純粹性이 따를리 없을 것입니다.

비록 科學技術의 開發·應用에 있어 時期的 差等이 있을 수 있음은 人間社會의 普遍的 現象이라 할지라도 科學技術의 研究·開發對象과 應用對象의 包括性이 많은 共通分野부터 隣接國家間的 協力을 보다 組織的으로 또한 計劃性있게 推進함으로써 科學技術振興이라는 兩國間的 共同的 大道를 開拓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本人은 貴國이 이룩하고 있는 놀라운 科學技術의 發展과 이를 이룩하는데 投入된 朝野의 努力에 對하여 깊은 敬意를 表함과 아울러 歷史的文化的 相互交流에 있어서나, 地理的 位置로 보아 그 어느나라 보다도 가까운 關係에 있는 두 나라 사이의 科學技術協력이 이번 會議을 通하여 더욱 알찬 結實을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本 會議 開催를 爲해 애써주신 關係官 諸位에게 다시 한번 感謝를 드립니다.

來年에는 長官以下 여러분을 韓國의 서울에서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1972年 4月 27日

科學技術處長官 崔 亨 燮